

『日東壯遊歌』에 대한 비판적 성찰*

- 18세기 서얼출신 향반의 사행체험

신명숙**

|| 차례 ||

- I. 계미통신과 사행기록
- II. 뜻밖의 해외 체험 기회
- III. 18세기 향촌 지식인의 갈등과 기질
- IV. 내적 체험의 외면화
 - 1. 새로운 공간 체험, 인식 : 異國 이미지
 - 2. 대 일본관, 대 일본인관
- V. 사행체험 전후의 거리

【국문초록】

『일동장유가』는 계미년(1763)에 통신사로 참여한 김인겸의 공적·사적 체험을 기록한 가사로, 조엄의 『해사일기』등과 함께 사행 체험을 엿볼 수 있는 문헌자료다.

일본에 대한 반감, 異國 체험의 설렘 등을 안고 떠난 사행 여정을 국문가사로 기술한 『일동장유가』는, 개인 체험을 넘어 조선후기 이용후생사상, 경험적 사실 진술양식으로 가사의 영역 확장, 작가의 기질적 해학성을 함축한 작품이다.

그러나 18세기 서얼출신 향촌 사대부인 김인겸은 새롭게 부각되는 실학사상에 낯설고, 신분 동요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국 풍경에 경탄하고, 새로운 토산물과 놀라운 과학적 성과물을 보면서 변화를 체감하지만, 이것은 여행자의 설렘이고, 사대부의 애민의식 이상의 진전은 아니다. 때문에, 그를 이용후생 학자로 보기도 어렵고, 체험을 통해 인식을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2-A00081).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責任研究員.

변모시킨 인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생사를 넘나드는 충격적 경험을 국문가사로 창작해, 체험을 공유하며 자기 존재를 확인하여, 가문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작가일 뿐이다.

통신사행 기록을 활발하게 연구하는 지금, 국문시가 양식으로 기술된 『일동장유가』를 통해, 18세기 조선 선비, 특히 서얼 출신 향촌 선비가 사행체험 전후의 거리를 조정하면서 세계관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 일동장유가, 해사일기, 계미통신사행, 18세기 서얼 향반, 이옹후생, 가사

I. 계미통신과 사행기록

사행가사는 國命을 받아 해외에 다녀온 체험을 기록한 문학양식이다. 때문에 서정적 자이는 공적 임무와 사적 체험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이 점이 여타의 문학양식과 구분되는 사행가사의 미학이다.

『일동장유가』는 영조 39년(1763, 癸未)에三房書記로 통신사에 참여한 김인겸의 공적·사적 체험을 기록한 8,243句의 장편사행가사이다.¹⁾ 8월 3일 辭朝해서, 1764년 2월 16일 江戶 도착, 3월 11일 回程, 7월 8일 復命한 여정을 정연히 기술하여, 체험기록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²⁾

계미통신사행은 어려움이 많았다. 差定이 반복되어 충분한 준비가 없었고, 회정 중에 피살사건도 발생했다. 11개월에 걸친 오랜 사행이었다. 한편,

1) 김인겸 원저·최강현 역주, 『일동장유가』, 보고서, 2007. : ① 국립중앙도서관본, ② 가람본, ③ 연민본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본은 심재완의 교합본 『일동장유가』 8,243구에 비하면, 2,611구 부족한 5,632구이다. 그러나 옮겨 베긴 날짜가 분명하여 현존 작품 중에 비교적 오래된 것이라 판본으로 썼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하겠다.

2) 壬戌使行(1682)에서 癸未使行(1763)까지 21편의 사행기록이 있다. (한태문, 『朝鮮後期 通信使 使行文學의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2, 학고방, 2008, pp.374~375.)

풍부한 체험기회를 얻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그 때문에, 치밀한 관찰, 상세한 묘사, 裏面의 갈등을 장편으로 그려내서, 관념에서 실상으로, 설명에서 묘사로 관심과 수법을 바꾸어 놓은 공을 이룰 수 있었다.³⁾ 그래서 『일동장유가』연구는 주로 체험기록물로서 문학적 성과, 작가의식에 초점을 맞춰 논의됐다.

한편, 『일동장유가』의 시각은, 正使 조엄(趙瞻, 1719~1777)의 『海槎日記』가 외교관계의 절차, 정보 수집, 정세 분석에 관심을 보이는 것⁴⁾과 차별화된다. 공적 영역보다 사적 영역에서 체험기록물을 남겨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체험의 감흥과 체감의 여운이 충돌하는 지점은, 사행이 끝나서 제 자리에 돌아온 그 시점이다. 18세기 향촌사족, 게다가 서얼출신이고, 한 차례도 出仕의 기회를 갖지 못한 57세 김인겸의 사행체험 정리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인상적인 사건, 이것을 수용하는 서정적 자아의 의식과 세계관, 동행한 인물들과의 미묘한 갈등 등을 『일동장유가』에서 읽어내어, 김인겸의 기억에 내재된 갈등과 갈등 표출방식을 추출하면, 이 사적 영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⁵⁾ 그 결과, 김인겸이 깨어있는 실학자이며, 의로운 박애주의자이고, 뛰어난 가사작가인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이 외 기록문 - 제술관 남옥(南玉, 1722~1770)의 『日觀記』⁶⁾, 정사서기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의 『日本錄』⁷⁾, 부사서기 원중거(元重舉, 1719~1790)의 『乘槎錄』⁸⁾ · 『和國志』⁹⁾ 등¹⁰⁾과의 대조를 통해 사행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9, pp.321~322.

4) 구지현, 『계미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 pp.15~16.

5) 『東槎錄』이 김인겸의 한문사행기록이라면, 『일동장유가』와 대비해 작가의 문학양식 수용태를 살펴볼 수 있다. (최강현, 1982.)

6) 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7) 홍학희 옮김, 『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8) 김정숙 옮김,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참여자 상호간의 시각차를 확인해 봄으로써 이것이 개인의 갈등인지 사회적 갈등인지 구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뜻밖의 해외 체험 기회

작가 김인겸은 김상헌의 현손이며 김창집의 5촌 조카다. 김상헌의 아들 光燦의 서자 壽能이 김인겸의 조부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상헌은 대표적 주전론자로 청에 압송되기도 했고, 효종을 도와 복벌도 추진했던 인물이다. 때문에, 김인겸은 비록 서출이지만,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그 정신을 계승해야한다는 강박도 가졌을 것이다. 뜻밖의 해외체험 기회, 게다가 이미 가문 내에는 사행체험을 한 인물이 있었기에,¹¹⁾ 두려움보다는 동경의식이 더 컸을 사행체험 기회가 57세 공주 향반 김인겸에게 찾아온 것이다.

김인겸(金仁謙, 1707~1772)은 본관이 안동이며, 호는 退石, 공주에서 태어났다. 영조 29년(1753)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었으나 隱士로 지내다가, 57세 사행에 참여하고, 이후 지평 현감을 지낸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로 미루어볼 때 김인겸은 명문 후손이지만, 서자였던 관계로 출세가 어려웠고, 부친이 일찍 죽은 까닭에 가세도 기운 상태였을 것이다.¹²⁾ “세 사신은 조정에서 내려오고, 네 선비는 시골 오두막에서 기용했다”¹³⁾는 말처럼 서얼은 벼슬살이도 어렵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도 힘들었다. 김인겸도

9) 박재금 옮김,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출판, 2006.

10) 그 밖에 『癸未使行日記』(吳大齡), 『癸未隨使錄』(작자미상, 구지현은 기록을 참고하여 부기선의 선장 卞瑑으로 추정함 : 『『癸未隨使錄』에 대한 재검토』,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2, 학고방, 2008, pp.1~31.), 『槎錄』(閔惠津)

11) 김수향, 김창집, 김창업 등은 연행사로 청나라를 다녀왔다.

12) 이계영,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성결대학교 석사논문, 2009, pp.6~8.

13) “三价下雲霄 四士起圭華” 『海槎日記』序

사행 여비가 부족해서, “예 빚내고 저기 얻어 艱辛이 차려”낼 수 있었다. 官服조차 없어서 빌려야 하는 처지였다.¹⁴⁾

김인검은 다른 문사들과 달리 별다른 官歷이나 활동이 없다. 그런 그가 改差 전 종사관 이득배의 추천으로 계미사행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의 집안 덕으로 보인다.¹⁵⁾ 영조의 물음에 가문의 내력을 그토록 상세하게 고하고, 두고두고 자신의 文才를 거론한 것도, 모처럼 얻은 사행 기회가 필연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17세기 들어 정치적 변동과 봉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중앙 사족과 향촌 사족이 분화되고, 사회 경제적 변동도 생긴다. 향촌으로 기반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사족은 겉으로는 迂闊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¹⁶⁾ 김인검 역시 그들이 가졌던 기질과 갈등을 공유했을 것이다. 게다가 서얼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까지 합해지면, 갈등은 배가 된다. 그 때문에, 김인검에게 계미사행 참여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문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주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얻은 사행의 여정 중에 김인검은 어려움을 겪는다.

12월 30일. 除夕이다. 그런데 김인검은 타국에서 병까지 들었다. “내 나라 있을 때도 除夕을 당하며는 마음이 다르거든 萬里밖 絶海中에 병들어 누웠으니 百感이 崩中한다” 급기야 “庸拙한 拙文字를 부질없이 배웠다가 이 길을 왔으니 남의 탓이 아니어니 恨歎하여 무엇하리”라며 탄식한다. 그래서, 6월 19일. 드디어 대마도를 떠나 23일 부산에 들어온 김인검은 “千金 같은 아내몸 이제는 살았구나”라고 술회한다.

서얼출신 공주 향반이 뜻밖에 머나먼 이국체험을 하고 온갖 어려움을

14) “烏角帶 黑團領은 / 從事相이 빌리시고 / 紗帽와 前後胸背 / 崔判事が 보내었다” (9월 6일)

15) 구지현, 앞의 책, pp.104~105.

16) 김상진, 『16·17세기 시조의 동향과 경향』, 국학자료원, 2006.

겪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안도와 감격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 여과 없이 그 심정 그대로가 김인겸의 귀환 소감이다. 오죽하면, 청주에 들어서자, “예서 나 사는 데 하루 길”(7월 3일)이니, 바로 가고자 한다. 復命의 영광보다 歸巢 갈망이 더 크다. 떠날 때의 감흥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감소되고, 생소한 환경과 온갖 어려움이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었을 향촌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한 것이다.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온 김인겸은 그 기억을 환기하면서 장하게도 긴 여정을 이겨낸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힘든 여정을 이겨낸 가장을 식솔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동장유가』를 지은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국문 가사를 쓴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남성이 국문 가사를 활용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내면의식을 표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가문 내에서 가사가 창작·유통되면서 익숙했고, 둘째, 남달리 국문 장르에 친숙하여 정서적 소회를 풀어내는 방편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¹⁷⁾ 김인겸의 경우 다른 국문 창작이 없고, 후손에 전승하려는 목적을 가졌으므로, 전자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체험을 준비하면서, 체험 중에, 그리고 돌아와서도 장하고 또 장한 사행의 기억을 자신의 기억에서 꺼내 문자로 남기고 싶고, 자신을 버리로 삼아 결속을 다지고 향촌 생활을 수용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저술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김인겸은 사행체험 기회를 얻음으로써, 신분적 한계·가장의 역할·한정적 공간을 벗어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때문에, 사행체험을 기억에 묻어두기보다, 문자로 새겨서 길이 남기고, 읽기 좋게 만들어 전달의 효율성을 꾀한 것이다.

17)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술회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pp.98~99.

Ⅲ. 18세기 향촌 지식인의 갈등과 기질

김인겸을 평가하는 논의는 몇 가지로 통일된다. 첫째, 문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둘째, 고집이 세다. 셋째, 청렴결백하다. 넷째, 의협심이 강하다. 다섯째, 인정미가 있다. 요컨대, 그는 이조의 전형적 선비의 인간성을 갖는다.¹⁸⁾ 그런 그가 뜻밖의 공간에서 뜻밖의 사건과 다른 처지의 사람들을 만난다. 김인겸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며,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신분에 대한 고민이 선명해졌을 것이다.

제술관이나 서기는 대부분 서얼 출신이다. 계미통신 사행에 참여한 제술관과 서기도 모두 文에 종사하는 서얼 출신으로 三使와는 거리가 가깝지만, 신분의 격차가 있고, 기술에 종사하는 중인 출신과는 거리가 멀지만, 신분에는 큰 차이가 없는, 조선후기 상황의 중심에 놓여있는 인물들이다.¹⁹⁾

정사서기 성대중은 서얼 출신으로, 관직은 교서관 교리, 복청도호부사에 머물렀지만 문장이 뛰어났으며, 원중거와 함께 北學에 연관되어 절친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다. 부사서기 원중거 역시 서얼 출신이다. 사마시 급제 후에도 實職을 얻지 못하다가, 奉事를 거쳐 통신사행에 동참한다. 사행 후, 이덕무·박제가 등과 함께 『海東邑誌』편찬에 참여하는 등 北學系 인사와 교류한다.²⁰⁾ 김인겸은 이들과 학문적 교류를 같이 한 흔적이 없다. 때문에

18) 장덕순, 「日本紀行 <日東壯遊歌>」, 『韓國古典文學의 理解』, 일지사, 1973, pp.301~304.

19) “1682년부터 제술관과 서기의 임명은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었고, 1764년 계미통신사행의 복명 시에는 三使와 함께 4文士가 함께 참여했다.” (하우봉, 「조선후기 대일통신사행의 문화사적 의의」, 『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화연구』, 보고사, 2011, pp.28~30.) 하지만, 그들의 신분적 한계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 김정신, 「1763년 계미 통신사 원중거의 일본 인식」, 『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화연구』, 보고사, 2011, pp.179~196.

같은 書記임에도 사상적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기술직 중인을 만날 기회도 많이 없었을 것이다. 18~19세기, 서얼 출신은 사대부와는 무리 없이 지냈지만 중인계층과는 반목했다.²¹⁾ 그 때문에, 사행에 참여한 의원, 역관들과 이들의 관계가 순탄하지는 않았다. 김인겸은 두 서기와와의 동질감을 획득하고, 중인들과의 이질감을 뚜렷하게 할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편, 통신사행을 주관하는 대마도인들의 대우도 생소했다. 제술관은 良醫와 서기는 寫員·畫員과 같은 처소를 배정받는다. 사행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세 사신과 역관은 높은 대우를 받고,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술관과 서기는 그 다음의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²²⁾ 첫 출사에 첫 사행에서 느낀 신분의 한계를 김인겸은 『일동장유가』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야기하고 있다.²³⁾

다음으로, 사상적 흐름을 간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실학의 발전이 김인겸의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²⁴⁾ 일본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한 태도 자체가 김인겸을 포함한 실학자들의 기본 자세였다는 언급²⁵⁾은 김인겸이 애당초 실학사상을 수용했거나, 사행체험을 통해 실학사상에 입문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인겸이 사행 이전부터 실학을 사상적 체계로 수용했다는 흔적

21) 김경숙, 『조선통신사 제술관 및 서기(書記)의 문학세계』,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2, 學古房, 2008, pp.36~42. 『일동장유가』에 원증거와 토교선장 김귀영과의 대립 삽화가 있다.

22) 김경숙, 앞의 논문, pp.52~55.

23) 비장과 역관들의 倭物貿易 실태, 최천중 살해사건서 ‘倭놈과 附同한 죄’를 운운한 것도 역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왜놈과 결탁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24) 소재영, 『일동장유가연구』, 『국문학논고』, 숭실대학교출판부, 1989.

25) 박희병, 『조선후기 가사의 일본체험, <일동장유가>』, 백영정병욱선생10주기추모논문집,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은 없다. 전통적인 士의식에 기반을 둔 애민사상과 신문물에 반응하는 보편적 정서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것은 정사 조업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조업은 水車의 모형도를 제작하고, 고구마를 채종한다. 문익점이 목화를 퍼뜨린 것처럼 백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김인겸 역시 신문물에 놀라고, 이롭게 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을 뿐이다.

사실, 18세기 실학과의 활동은 보다 구체적이다. 18세기 후반 실학과의 일본 연구는 ‘무’의 일본관으로부터 탈피하고, ‘문’의 일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실사구시’ 학풍에서 생겨났다. 특히, 성대중과 원중거는 이덕무와 개인적 친분이 깊었다. 이덕무는 문헌과 이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거하여 일본의 전체상을 밝힌 『蜻蛉國志』를 저술했다.²⁶⁾ 때문에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학에 입문하려는 의지를 가졌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일동장유가』에서 김인겸의 실학사상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오히려, 김인겸은 중인층과 무관층의 상행위를 비판한다. ‘千金이라 해도倭놈의 돈은 받지 않는다’는 김인겸의 언급은, 자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시각이다. 때문에 일본문화와 사회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대단히 주관적이며 피상적으로 흐르고 말았다는 평가는 일리가 있다. 당대 향촌지식인의 선비의식이 지니고 있었던 세계 인식의 폭은 일본의 문물과 문화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것이었다.²⁷⁾ 조업이 “萬一 兵難 있게 되면 倡義하고 憤慨할 이 반드시 자네”(4월 20일)라고 말한 것은 융통성과 현실 적응력이 없는 김인겸을 풍자하는 말일 수 있다.

반면, 향촌에 묻혀 살면서 서민들의 해학을 수용한 듯하다.

26) 강재언 지음·이규수 옮김,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2005, pp.309~310.

27) 高淳姬, 「18세기 향촌지식인의 선비의식 : 日東壯遊歌를 통하여」, 『한남어문학』17 · 18집, 한남대학교, 1992, pp.169~175.

조엄은 평소 알고 있던 기생을 사행길에 만나지만, 가까이 하지 않는다. 사신 가는 길에 옥이 될까 두려워서다.²⁸⁾ 그러나 김인겸은 풍류를 안다. 8월 11일 예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김인겸은 군관을 희롱할 요량으로 못한 차모[茶母]를 구해준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재미있다.

쑥 같은 혈은 머리 실로 땅아 마주 매고
 눈썹 끼인 오흰 눈을 희부시시 겨우 뜨고
 옷조롱 같은 낮이 멍석처럼 엮였구나
 무명 반물 뒤릉다리 귀까지 담백 쓰고
 현 저고리 짧은 치마 懸鶉百結 하였구나
 洞口 안 三月이는 예 비하면 一色일세
 차보오 손에 들고 뜰에 와 주춤할 때
 밑살이 터졌던지 방귀조차 뀌는구나. (8월 11일)

마치 조선후기 <노처녀가> 나, <장화홍련전> 계모 허씨 형상과 유사한 모습이다. 상황 설정도 재기발랄하지만, 인물 묘사는 일색이다.

女色의 奇異키는 倭國中 第一이라
 젊은 名舞들이 左右便에 앉은 絶色
 다 주어 보려 하고 저기 보고 여기 보니
 챗머리 흔들 듯이 저물도록 길을 오며
 도리질을 하는구나. (3월 20일)

女色을 보겠다고 이리저리 머리를 돌리는 모양새가 마치 도리질하는 어

28) “余於道內有所眇三妓 而萊州之妓既歸北邙 大丘之物已屬別人 只於此州 惟餘一妓而兩日留連 不復近者 竊有意焉 余以不才 今膺異域奉使之命 苟或先於女色上留意 則非但愼疾之犯戒 將何以清心寡欲 酬應使事 以此財色兩事 必欲斷祛私意 以爲專心於職任之地 未知可能守此戒否也”(『해사일기』, 8월 13일)

린아이 같다. 그것도 일본 여인이다. 근엄한 老文士의 이런 모습에서 체면을 다 벗어버린 순진한 김인겸의 참 모습이 보인다.

한편, 6월 29일 성주에서, 역관 이언진(李彦璵, 1740~1766)이 “고은 茶母를 달라기”에 얻어 주었는데, 희롱을 당했다.

그 년이 不測하여 품에 들어 누었다가
 울면서 哀乞하되 아비 祭 오늘이니
 잠깐 가보고 와서 모시고 자리이다
 열없는 솥 사나이 그 말을 끝이듣고
 잠깐 가보고 오라 당부하여 보낸 것이
 날 새도록 기다린 들 그림자도 오잖았다
 잠 한 숨을 못 자고서 눈망울이 붉어져서
 일 일어 와서 보고 切痛하여 하는 舉動
 저마다 譏弄하니 우습고 絶倒하다 (6월 29일)

그런데, 어린 茶母는 人稟이奇特하고 얼굴이 비상하다. 김인겸은 미리 알고, “아무 말 할지라도 잃지 말라” 당부까지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누구의 편에 서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지 따지자면, 어린 다모보다 못한 역관을 놀려보자는 심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인겸은 어린 다모가 機智로 위기를 모면할 줄 알았던 것이다. 다음에도 이언진은 “제 어미 大祥이라 百方으로 哀乞하니”(7월 1일) 또 다모에게 속는다. 어눌한 오입쟁이 이언진이 뒷머리를 긁적이는 모습이 선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면 다른 의도가 엿보인다.

일본 문사들이 역관 이언진의 문장을 인정하고,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언진의 지극히 개인적 면모를 김인겸 자신의 작품에 기록한 것은 의도된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²⁹⁾ 이언진의 발랄한 재기와 거침없는 언변에 일본 문사들이 감탄함으로써, 당초 거의 존재감이 없던 그는 돌

아울 즈음 일본 문사들에게 상당한 예우를 받는 인물로 부상했다. 문장을 인정받아 사행에 참여했던 김인겸에게 20대의 역관 이언진은 지워버릴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아니면 다른 기억으로 덮어버리고 싶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가 사행 일정을 마치고 대판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지은 시문이 이미 출판되어 나왔다고 했을 정도이니, 일본에서 그가 보여준 활약상은 앞서 필담을 통해 본 것 이상이었을 것이다.³⁰⁾

어설프지만 풍류를 알고, 꼭 막혔지만 해학을 이는 향반이 세상 밖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해 보니 생각과는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김인겸은 內心を 행간에 숨긴 채 체험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사건을 기술한다.

Ⅲ. 내적 체험의 외면화

『일동장유가』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763년 8월에 출발해 이듬해 7월에 도착하기까지 11개월 남짓의 긴 여정을 ‘준비-도정-도착-회정’의 과정과 함께 진술하고 있다. 이 과정을 ‘관찰-소회-표백’의 재현과정을 통해 언어구조체로 만들어 나간,³¹⁾ 18세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사행여정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 국문가사 작품이다.

18세기 가사는 삶의 다양한 국면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통로 기능을 담당한다. 『일동장유가』도, 작가 자신의 충격적 경험을 선별·조합하여 과거

29) “名震耀海外萬里之國 身傾側鯢鯨龍鼉之家” <虞裳傳> : 藍島에서 龜井南冥(1743~1814)은 이언진과 和韻하며 필담을 이어간다. 남명은 “與君一夜話 勝讀十年書”로 반가움을 표실했다. (정민, 『이언진과 일본문사의 왕세정 관련 필담』, 『동아시아문화연구』제49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pp.14~15.)

30) 정민, 위의 논문, pp.36~39.

31) 박영주, 『기행가사의 진술방식과 문학적 형상화 양식』, 『한국시가연구』제18집, 한국시가학회, 2005, p.223.

와 현재의 ‘나’가 만나는 계기를 마련한, 역동적이고 창조적 성격을 지닌 문학적 기억 활동이다.³²⁾ 게다가, 조선후기 가사는 서사성이 강화된다. 이야기 방식을 수용해 장편이 되면서, 변화한 시정의 물정과 세태를 그려낼 수 있었다.³³⁾ 특히 사행가사는 특정 기억을 재구성하고, 특정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 내면과 대화하고, 내적체험을 외면화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양식이다. 때문에, 묘사와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 길어지고 서사성이 농후해진다. 김인겸이 자신의 가문과 주변 인물들을 1차적 독자로 설정하고, 자신의 체험을 묘사하고 전달하고자 할 때 국문, 그것도 가사라는平易하면서도 내용의 초점화가 가능한 장르를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다.³⁴⁾

앞서 언급한 『東槎錄』³⁵⁾이 김인겸의 한문 사행기록이고, 한문과 국문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사건의 전개와 인물의 나열순서가 『일동장유가』와 거의 유사하다면, 독자 지향성의 차이가 표현방식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김인겸이 일생일대의 체험을 국문으로 기록한 것은, 우선 수용계층으로서 부녀자를 포함한 가문 일족을 염두에 둔 것이고, 한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한 상황들을 모두 담아내고자 한 기록자로서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일동장유가』는 굳이 반복과 열거의 표현 방식을 써서 형식적 장형화를 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진다.³⁶⁾ 따라서, 조선후기 작

32) 정인숙, 앞의 논문, pp.70~72.

33) 김학성, 「18·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여항-시정문화와의 관련양상을 중심으로-」, 『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사, 2004, p.34.

34) 조규익, 「사행가사의 해외체험과 세계관 : <일동장유가>와 <병인연행가>」, 『국문 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pp.203~212.

35) 『靑丘稗說』에 「退石金仁謙所著東槎錄所載崔天宗事」, 「金退石仁謙東槎錄抄」가 수록되어 있다.

36) 조세형, 「후기가사의 표현 특성과 그 문학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제22집, 한국시

품의 표현특성보다,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기억의 편린들을 추려서 한편의 문학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대상 추출과 환기, 응축의 방식을 써야했다. 때문에, 비유적 수사나 비교·대조가 많다.

기행가사는 개별 장면을 총체적 국면에서 형상화하고, 다양성을 토대로 세밀한 진술과 형상 창출을 지향하며, 현장감 넘치는 묘사와 진술로 생동적 형상을 창출하는 양식이다.³⁷⁾ 그리고, 『일동장유가』는 이런 요구를 충족하는 문학이다.

체험을 구체화하면서 총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기체 형식, 문답을 통한 세밀한 진술, 생동감을 주는 풍부한 묘사³⁸⁾ 등 문학적 형상화에 주력한 서술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판소리 사설체를 원용한 해학적 표현으로 단조로운 표현방식을 극복했다거나,³⁹⁾ 일본민속과 구비문학의 활용 등을 추가할 수 있다.⁴⁰⁾

그런데, 문답형식이나 풍부한 묘사를 통해 사행체험을 재구성하는 것은 비단, 『일동장유가』만의 특성은 아니다. 사행록 역시 상세하고, 실증적이며 객관적 서술을 한다. 『승사록』4월 16일 일기에는, 도시의 다양한 모습이 실감나게 진술되어 있다. 장사하는 사람, 배를 만드는 과정, 배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모습이 상세하다.⁴¹⁾ 때문에 풍부한 묘사만이 국문가사의 특성이 될 수는 없다.

전문 사이에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고 행동했는지 드러

가학회, 2007, p.242.

37) 박영주, 앞의 논문, pp.226~234.

38) “하늘에 올랐다가 地陷에 내려지니 / 열두발 쌍뚝대는 叉樞처럼 굽어있고 / 선두쪽 草石뚝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10월 6일)

39) 劉香淑, 『〈日東壯遊歌〉의 作家意識과 敘述樣式』,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1, pp.76~97.

40) 한태문, 앞의 논문, pp.371~411.

41) 김경숙, 앞의 논문, pp.81~83.

내 보이고 싶은 ‘내적 체험의 외면화 욕구’에서 『일동장유가』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1. 새로운 공간 체험, 인식 : 異國 이미지

타국체험은 새로운 문물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문물을 만날 때마다, 김인겸은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⁴²⁾ 이것은 견문을 넓히게 되었다는 自足보다, 애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확장된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사고가 비단 김인겸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조엄은 3월에 누렇게 익은 보리를 바라보고 놀라며, 물레방아를 보고 살펴볼 것을 명하기도 했고, 甘藷[고구마]를 가져갈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통신사 사이에서 논쟁의 씨앗이 되었던 富士山과 금강산 비교논쟁도 김인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인겸은 일본의 土品이 기름져서 產物이 잘 자라고 맛이 좋은 것을 누차에 걸쳐 말한다. 절경 감상은 유람자의 여유이지만, 현실적 산물 인식은 사대부의 직분이다. 백성을 이롭게 하고픈 사대부의 눈에, 가져다 두었으면 좋을 토질이며 인상적인 먹을거리다. “島中이 土薄하여 生利가 家難하기 孝子土蘭 심어두고 그로 救荒한다”하여 쌀을 주고 사다가 찌 먹었다. 바로 고구마이다.

이 뻘 니여다가 아국의 심거두고
간난흔 帑성들을 흥년의 먹게호면
진실로 도겨마는 시절이 통한호야
가져가기 어려우니 취종을 어이호리 (10월 15일)

42) “오늘밤에 여기 와서 이리 놀줄 어이 알리 / 세상에 모를 것은 사나이 일이로다” (10월 15일) ; “天下에 壯한 구경 이에서 또 없으리 / 사나이 좋은 줄을 오늘이야 알리로다” (1월 19일)

『해사일기』에는 귀로에 取種하고 재배저장법까지 익혀 동래와 제주도에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비단 김인겸만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독특한 이국 이미지를 조각조각 잊지 않고, 유용하게 쓸 요량을 하는 것을 보면, 김인겸은 세심한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막연한 타국 의식을 가지고 있을 독자에게 한껏 내가 이 광경을 보았노라 자랑하는 형세로 보아야지, 실학자의 이용후생을 엿보기는 어렵다. 구체적 상황인식이 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과학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김인겸은 인상적 풍경을 스쳐가면서도 세세히 관찰하고 기록한다. 돌아오는 길에 물레방아를 보았다. 모양새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꼼꼼하게 기술하고 있다. 대마도에서 輪圖를 보고 쓴 7언 절구의 한 시에는 놀라움이 있다.

이십사 方位가 바퀴 하나 끼고 있고,	三八乾維拱一輪
한 가운데 두병 달아 신기하게 돌아가네.	中懸斗柄轉環神
蚩尤를 깨뜨린 그 법이 오히려 남아,	破尤遺法今猶在
음양의 묘한 이치를 참으로 터득했네.	揄得陰陽二妙眞 ⁴³⁾

물속에 水器놓아 江물을 자아다가
 흙으로 引水하여 城안으로 들어가서
 製作이 奇妙하여 法받음직 하구나야

<……>

人力을 아니 들여 城가퀴 높은 위에
 물이 절로 넘어가서 온 城中 居民들이
 이 물을 받아먹어 不足들 아니하니
 眞實로 奇特하고 妙함도 妙할시고

(1월 27일)

43) 김인겸, 『詠輪圖(在馬島時)』, 『해사일기』

김인검은 水器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상세하게 그려냈다. 『해사일기』에도 옮겨다가 사용한다면, 눈에 물을 대기에 유리하겠으나 이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업이나 김인검이나 관심을 갖고 효용 가치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세계관은 보편적 애민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밖에도 浮橋의 실용성⁴⁴⁾, 물레방아의 과학적 원리에도 관심을 갖는다. 특히, 물레방아의 편리함은 김인검이 쌀농사에 이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차이를 알았던 것이다. 향촌사족의 삶이 농민의 삶과 격리되지 않았기에 포착 가능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도시의 번성함에 놀라서, “우리나라 三京을 가름다 하건마는 예 비하여 보게 되면 埋沒하기 가이 없네”라고 주저 없이 말할 수도 있다.

사실, 영조 때 李瀼이 磻溪의 실용학을 계승하고, 順菴이 이어받아, 사회적 분위기가 이용후생을 학문의 목적으로 하는 실학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김인검도 실학에 관심을 가졌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모순이나 이용후생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⁴⁵⁾ 김인검의 일본 과학문물 관찰은 백성의 삶을 생각하는 애민의식의 일환으로 보인다.

2. 대 일본관과 대 일본인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본에 의해 ‘소중화적 자존의식’을 손상 받은 조선은 세계관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⁴⁶⁾ 깊은 상처는 적개심만 높인 것은 아니다. 왜 상처를 입어야했는지, 일본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의문

44) 『일동장유가』, 2월 3일

45) “國家齋人 蔘種子 嘗其種養之譜 作爲書契而送之江戶 幸而得傳種 則在渠國眞獲生靈之命 在我國亦不至日漸翔貴 而貧人得以藥用 而蔘商犯法之弊可以漸除” 『乘槎錄』

46) 조규익, 앞의 논문, p.207.

도 생겼을 것이다.

김인검은 한강을 건너 二陵을 보고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漢江을 얼른 건너 二陵을 지나오며 壬辰年을 생각하니 분한 눈물 절로 난다”(8월 3일), “陣터를 바라보고 律詩 한 수 지어내어 忠魂을 慰勞”(8월 7일)한다.⁴⁷⁾ 조령을 지날 때 김인검은, “만약 한 사람만 먼저 요새를 웅거했던들, 그때에 行長을 손쉽게 잡았을걸.(若使一夫先據險 當時容易鹹行長)”이라며 한탄한다. 『일동장유가』에서 “여기를 못 지키어 島夷를 넘게 하고 이 莫非 하늘이라 千古의 恨이로다”라고 노래한 것보다는 한시가 더 절절하다.

반면에, 원중거는 “어찌하면 孫吳의 병술을 다 배워서, 干戈로 한번 싸워 오랑캐를 물리칠까.(安得孫吳術 干戈闢草萊)”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한다. “성조의 조정에는 天險이 쓸 데 없다오. 나라 운수 장원키는 덕에 달려 있는 걸세.(聖祖設險元無用 觀國隆都德與長)”라고도 노래한다.⁴⁸⁾

김인검은 임란 유적을 감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원중거는 참고해야 할 역사적 진실로 수용한다.⁴⁹⁾ 事勢를 읽지 못한 조선에 전란의 책임이 있다는 원중거의 현실론과는 대조적 입장이다. 원중거는 명의 군사적 원조조차 자국의 안위와 변방의 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출병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성대중과 원중거의 현실적 세계인식은 김인검에게 있어 충격적 경험이면서 동시에 소외감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

김인검의 일본에 대한 저항의지가 감정적이었던 만큼, 일본에 관한 이성적 판단이나 의식의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런데, 回程 중 上房執事 崔天宗 살인사건(4월 7일)까지 발생한다. 김인검은 “切痛하고 切痛하다”

47) “遣恨彈琴水 深響野馬臺 山河猶壯氣 猿鶴尙餘哀 過客增悲慨 孤舟獨泝洄 百年薪膽痛 掩淚下東萊” 『過彈琴臺』, 『해사일기』

48) 『過鳥嶺』, 『해사일기』

49) 김정신, 앞의 논문, pp.197~198.

는 말을 되풀이하고, 정사의 미온적 처리에 항변한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세상물정을 모른다는 편견이었다.⁵⁰⁾ 김인겸은 분기를 참지 못한다. 나라 밥 먹으면서, 일하지 않으면 개·돼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엄을 비판한다. 그 밖에도 관백의 無知⁵¹⁾나 無禮, 미숙한 정치문화에 대해서도 김인겸은 불편한 심사를 드러낸다.

그러나, 文才가 있는 일본인을 만나면, 시각은 달라진다.⁵²⁾ 국적을 불문하고 文才 있는 文士는 아끼는 것이다. 일본을 인식하는 이원적 사고는 일본을 체험하면 할수록 깊어진다.

1719년 통신사행 제술관이었던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은 일본인의 性情이 거칠고 경박스러워 스스로를 예로써 검속함이 없으며, 모두 새나 쥐 같은 마음 씹씹이를 가지고 있을 뿐 한 사람도 두터운 신망을 받을 만한 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대개가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함께 필답이나 짧은 편지를 나누어 보면 창졸간에 응대하는 것이 혹 기이하고 아름다운 말이 많다고 한다.⁵³⁾ 김인겸 역시 일본에 적개심을 갖지만, 체험 이후 평가는 달라진다.

이상한 외형, 더러운 풍속⁵⁴⁾, 야단스러움, 사치도 이해할 수가 없다. 김인겸은 『일동장유가』를 시작하여 끝을 맺을 때까지 한번도 ‘일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본인’이라고 기록해야 마땅할 것 같은 곳에서

50) “김진사 자라날 때 시골서 하엿기에 / 行世보를 모르고서 直說하고 過激하여 / 敢言不諱 하는것이 大家風俗 있는지라 / 이는 비록 貴커니와 自己의 몸 찌하기는 / 小하다 하리로다” (4월 20일)

51) 『일동장유가』, 12월 7일

52) 『일동장유가』, 12월 8일

53) 성대중, 『日本錄』卷2, 『靑泉海遊錄鈔』, p.266, p.244. (김정신, 앞의 논문, p.204. 재인용)

54) “제 나라 貴家 婦女 결집에 다닐 때에 / 바지 아니 입었기에 서서 오줌 누게 되면 / 제 隨從 그 뒤에서 明絢手巾 가졌다가 / 손으로 찢겨 주니 들으매 駭然하다” (1월 22일)

도 ‘왜놈’, ‘예놈’으로 기록하였다. 작품 전체에서 ‘왜’가 40회, ‘왜인’이 9회, ‘왜놈’이 18회, ‘예’가 5회, ‘예놈’이 12회로 나타난다.⁵⁵⁾ 그 밖에 ‘倭놈’, ‘穢놈’의 사용을 往路和 歸路로 나누어 조사하면, 왕로 42회, 귀로 7회, 도합 49회를 보인다.⁵⁶⁾ 판본에 따라 추출되는 어휘의 빈도수가 상이하므로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김인겸의 인식 변화에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일본을 하대하는 김인겸의 태도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지만 서술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김인겸의 일관되지 않은 자세다. 일본 여인의 저급한 풍속에 놀라면서, 아름다움에는 설렘을 감추지 못한다.

人物이 明媚하여 沿路에 으뜸이다
 그 중에 계집들이 다 모두 一色이다
 섯별 같은 두 눈치와 朱砂같은 입술들과
 잇속은 白玉같은 눈썹은 나비 같고
 빼오기 같은 손과 매미와 같은 이마
 얼음으로 새겼으며 눈으로 뭉쳐 낸 듯
 사람의 血肉으로 저리 곱게 생겼는가. (2월 3일)

풍속이 다르니,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보편적 인정이야 매한가지다. ‘다름에 대한 흥미’가 있었기에 음란한 성문화나 사치 등을 기억의 조각에 담아둔 것이다.

한편, 일본인을 대하면서 ‘같음에 대한 놀라움’도 감추지 않는다.

사행 초기에 일본관은 일본인관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마냥 타국 체험에 대한 기대와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반감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55) 洪西杓, 『日東壯遊歌에 나타난 對日觀』, p.21. 가람문고 영인본 추출

56) 李成厚, 『日東壯遊歌와 日本遊覽歌의 比較研究』,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1981, p.46.

다. 그러나 ‘같은데 대한 놀람’은 김인겸에게 ‘다름에 대한 흥미’ 못지않은 충격적 체험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관과 일본인관은 거리를 두고 기억의 창고에 저장된다.

술집과 麵房 싸전[米塵] 좌우에 벌였는데
깊이 있는 倭女들이 風流듣고 다 나오네
길가 집 한 계집이 문 열고 베를 짜되
베를 연장 온갖 것이 朝鮮과 한 가지다 (11월 5일)

일본이고 조선이고 할 것 없이 사람 사는 모양새는 같다. 傳語官에게는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⁵⁷⁾ 같은 날, 대마도주를 ‘義暢’이라 부른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生鰻을 먹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일본인을 기록하게 여긴다.

닭의 소리 개소리와 새소리 牛馬소리
我國과 一般이요 아이 소리 웃음소리
天地로 나는지라 조금도 다르잖다 (3월 29일)

변하지 않는 이치는 사람은 모두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산물이 제각각 좋고 나쁨이 있고, 나라의 풍속에 다름이 있다고 해도, 자연이 내는 소리와 아이 웃음소리는 하나도 다를 것 없다. 天機는 언제 어디라도 같은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본래 김인겸은 인정이 깊은 사람이다. 본국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을 베푼 예가 있다. 情人을 찾아 온 경주기생을 비록 제도에 벗어난 행위이나, 仁情으로 따지면 용서할 수 있다고 본다.⁵⁸⁾ 이것이 김인겸의 논리다. 역으

57) 『일동장유가』, 11월 6일

로 보면, 한바탕 풍류는 인정할 수 있지만,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뜻이다. 확장하면, 김인겸의 인정은 일본은 끝까지 수용할 수 없지만, 일본인은 수용할 수 있었던 사행 체감의식과 같다. 인정은 제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日人일지라도, 인정이 통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확실히, 김인겸의 일본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거리가 있다. 2월 27일 國書를 전하는 날이 되어, 成服하고 六行禮를 할 때, 김인겸은 병을 칭하고 참여하지 않는다. 이유는 拜禮하기 싫어서이다. “朝鮮國 使臣들이 禮貌가 嫻熟하니 奇特다”는 말도 가소롭게 들릴 뿐이다.(2월 28일) 확실히 일본 전체를 보는 인식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행체험을 통해 세계관이 변모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세계관이 확장되는 기회는 얻었을 것이다.

이것은, 원중거가 ‘地勢’ 때문에 풍속이 다를 뿐이니, 일본을 폄하하지 않는 것, 義를 알고 國法을 두려워하며, 근면·성실·청결·단정한 일본인의 기질은 오히려 우리가 흠 잡히지 않을까 두렵다고 본 것과 차이가 있다. 18세기 전반 조선의 치열한 湖洛논쟁에서, 湖論의 보수적 주자학파는 입장을 달리했던 원중거의 洛論의 학풍이 그의 일본 인식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 하겠다.⁵⁹⁾

V. 사행체험 전후의 거리

김인겸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을 쓰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일동장유가』를 써나갔다. 본인이 참여하지 못한 사건을 기술할 때는 傳言 경위를 밝힘으로써 체험의 주체를 분명히 한다. 그

58) 『일동장유가』, 9월 26일

59) 김정신, 앞의 논문, pp.204~208.

리고, 『해행총재』에 소개된 사실은 가급적 피했다. 기행문의 요체는, 견문은 정확하게 하고 비판에는 주의·주장이 있어야 하는데, 김인검은 이런 요령을 잘 살렸다는 평가도 일리는 있다.⁶⁰⁾ 그러나, 김인검에게서 비판에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떠날 때의 형편과 똑같은 모양새이다.

一行上下 官服하고 闕下로 나아갈 때
나는 官服 없는지라 梁宣傳 傳囑하여
武兼廳에 빌어다가 한가지로 入侍할 때

김인검은 여전히 관복이 없어서 빌려 입어야 할 신세다. 7월 8일. 복명하니, 사행의 막중한 책임을 면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임, 체험을 정리하는 일이 남았다.

掬拜하고 辭退하니 天恩이 罔極하다
여드레 겨우 쉬어 公州로 내려가니
妻子息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다시 본 듯
기쁘기 極 한지라 어린 듯 앉았구나

<……>

風濤의 險하던 일 前生 같고 꿈도 같다
壯하고 異常하고 무섭고 놀라우며
부끄럽고 痛憤하며 우습고 多幸하며
미우며 애처롭고 奸邪하며 사나웁고
慘酷하고 불쌍하며 고이하고 工巧하며
貴하고 奇特하며 위태하고 노여우며
快하고 기쁜 일과 지루하고 難堪한 일
갖가지로 갖추 겪어 一年만에 돌아온 일

60) 장덕순, 앞의 논문, p.305.

子孫을 뵈려하고 歌辭를 지어내니
萬의 하나 記錄하되 지루하고 荒雜하니
보시는 이 웃지 말고 破寂이나 하소서 (7월 9~17일)

김인겸이 『일동장유가』에서 그려내고 싶은 것은 일본의 表裏였던 듯하다. ① 壯하고 異常하고 / 무섭고 놀라우며, ② 부끄럽고 痛憤하며 / 우습고 多幸하며, ③ 미우며 애처롭고 / 奸邪하며 사나웁고, ④ 慘酷하고 불쌍하며 / 고이하고 工巧하며, ⑤ 貴하고 奇特하며 / 위태하고 노여우며, ⑥ 快하고 기쁜 일과 / 지루하고 難堪한 일을 갖추어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때문에 김인겸에게서 일관된 시각을 찾기란 어렵다. 김인겸이 생각하는 일본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진 다른 나라일 뿐이다.

18세기 공주에 사는 서얼 출신 향반, 계다가 57세의 老文士에게 주어진 뜻밖의 해외체험 기회,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 華夷보다 실학이 대세이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했다. 글 하는 서얼보다 기술 있는 중인이 오히려 부상하는 현실에 마주했기 때문이다. 앞선 세계관을 수용하지 못한 서얼 출신 향반 앞에, 文才가 출중한 역관도 있다. 일본이란 공간에서 사대부의 후손이란 내세울 자랑거리도 아니다. 돌아와 생각해 보니, 일생 일대 사건의 기억이 조각나기 전에 엮고 매서 알리고 싶은 표현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보다 가사, 한문보다 국문 양식으로 기억을 엮어낸 것이다.

새로운 문물을 만날 때마다, 놀라운 정경에 경탄하고, 섬 토양을 부러워도 한다. 앞선 과학기술에 애민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만 생각하면, 임란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무례하고 무지하다. 뜻밖의 사건까지 겪다 보니 그 마음이 더욱 강해지지만 한다. 계다가, 일본인은 음란한 풍속과 사치만 일삼는다. 그러나 일본인은 조선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民’일 뿐이다. 인정에 눈물 흘리고,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 김인겸은 그 나라에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만큼은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시각으로 변해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겸의 세계관의 확장을 세계관의 전환으로 읽어들이거나, 18세기 실학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분명 무리수가 따른다. 뜻밖의 해외체험 기억을 엮어서 가문 사람들에게 읽히려는 창작배경에는, 흔들리는 18세기 서얼출신 공주 향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체험을 공유하고픈 욕망이 있을 따름이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퇴석 김인검 원저·길발 최강현 역주, 『일동장유가』, 보고사, 2007.

金東柱, 『국역 해행총재 - 해사일기』Ⅶ, 민족문화추진회.

저서 및 논문

강재언 지음·이규수 옮김,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2005.

高淳姬, 「18세기 향촌지식인의 선비의식 : 日東壯遊歌를 통하여」, 『한남어문학』17
· 18집, 한남대학교, 1992.

구지현, 『계미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사, 2006.

김경숙, 『조선통신사 제술관 및 서기(書記)의 문학세계』,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
서』2, 學古房, 2008.

김상진, 『17·18세기 시조의 동향과 경향』, 국학자료원, 2006.

김정신, 「1763년 계미 통신사 원증거의 일본 인식」, 『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화연구』,
보고사, 2011.

김학성, 「18·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여항-시정문화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사, 2004.

박영주, 「기행가사의 진술방식과 문학적 형상화 양식」, 『한국시가연구』제18집, 한국
시가학회, 2005.

劉香淑, 「〈日東壯遊歌〉의 作家意識과 敘述樣式」,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1.

이계영,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성결대학교 석사논문, 2009.

李成厚, 「日東壯遊歌와 日本遊覽歌의 比較研究」,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1981.

장덕순, 「日本紀行 <日東壯遊歌>」, 『韓國古典文學의 理解』, 일지사, 1973.

정 민, 「이언진과 일본문사의 왕세정 관련 필담」, 『동아시아문화연구』제49집, 한양대
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술회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조규익, 「사행가사의 해외체험과 세계관 : <일동장유가>와 <병인연행가>」, 『국문
사행록의 미학』, 亦樂, 200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9.

조세형, 「후기가사의 표현 특성과 그 문학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2집, 한국시가학회, 2007.

하우봉, 「조선후기 대일통신사행의 문화사적 의의」, 『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화연구』, 보고사, 2011.

한태문, 「朝鮮後期 通信使 使行文學의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2, 학고방, 2008.

洪酉杓, 日東壯遊歌에 나타난 對日觀,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84.

Abstract

Critique about 『Ildongjangyuga』

- Envoy Experience of a Noble Countryman as a Son of a Concubine
in the 18th Century

Shin, Myung-sook

『Ildongjangyuga』 is Gasa that recorded the public and private experiences of Kim In-gyeom, who participated in a journey as an envoy in Gyeminyeon(1763). It is a literary document that enables us to glimpse his journey experiences along with Jo Eum's 『Haesa Ilgi』.

『Ildongjangyuga』, describes the journey in which Kim In-gyeom went off while having hostility toward Japan and thrill of experiencing a foreign country, and, as Gasa written in the Korean script, it is a work that exceeds the level of personal experience while extending the boundary of Gasa and condensing the temperamental humor of the author with its promotion of the public welfare ideology of later Joseon as well as an experiential description of facts.

However, Kim In-gyeom as a noble countryman in the 18th century, was unfamiliar with newly emerging practical science and found it difficult to chaotic social class system. Although he was fascinated by exotic scenes and felt changes from new local products and amazing scientific achievements, this was simply a thrill as a traveler and nothing more than love of the people as a nobleman. Therefore, it is hard to see him not only as a scholar to promote public welfare, but also one who made a difference in awareness via his experience. Rather, he is considered a gasa writer who tried to share his experience, identify himself, and reinforce the solidarity of his family, by creating shocking life and death struggles in Gasa.

In the present, when the record of an envoy's journey is being actively

studied, this study was able to discove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worldview of a classical scholar of 18th century Joseon as it adjusted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nvoy's journey through 『Ildongjangyuga』, described in the form of an anthology in Korean

Key-words : Ildongjangyuga, Haesa ilgi, a journey as an envoy in Gye-minyeon(1763), a noble countryman in the 18th century, public welfare ideology, Gasa.

신명숙

소속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주공뉴타운 211-1302호

전화번호: (직장) 031-8005-2625 (휴대전화) 010-6323-2933

전자우편 : nemo45@hanafos.com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
--